

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2차) 참석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3.6.20(화)~6.22(목) 16:00~01:00 / 화상회의
- (참석자) EU, 일본, 미국 등 33개 CPC, 4개 협력자, NGO (약 150명)
(한국대표단) 해수부 국총과 심수빈 사무관, 원협, 업계, 센터 양재걸 전문관

□ 주요 내용

1. 눈다랑어 TAC

- 논의 내용
 - 중미 CPC들은 위원회 자원관리 목표*에 비추어 TAC 7.5만톤을 주장
 - * '34년에 자원상태가 Kobe 구획도 녹색 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50% 이상
 - 미국, 영국, 캐나다는 눈다랑어 치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동반될 경우에만 현재 TAC(6.2만톤)에서 증가를 수용할 수 있음을 표명
 - 일본은 '24~'25년에 TAC 7.3만톤으로 설정하고 '25년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TAC를 조정하는 수확통제규칙을 제안
 - 일본이 제안한 수확통제규칙에 대한 CPC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잠정적인 수확통제규칙 마련

(일본 제안) 눈다랑어 TAC 수확통제규칙

1. '24년과 '25년 눈다랑어 TAC는 7.3만톤으로 설정
2. '25년 자원평가 결과, '34년에 자원상태가 Kobe 구획도 녹색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 1) 65%를 초과하면 7.3만톤 유지
 - 2) 65% 미만이면 65% 이상이 되도록 TAC 조정
 - 3) 70%를 초과하면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TAC 증가를 고려
3. 본 수확통제규칙에서 사용된 65% 수치는 잠정적인 수치로서 타어종에 적용되는 수치 대비 높은 수치임을 인식하고 향후 본 수치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 미국, 영국, 캐나다는 치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마련된 것이 없으므로 제안된 TAC 7.3만톤은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

2. 눈다랑어 어획 할당

○ 할당기준

- 중미와 EU는 '14~'18년 최근 어획량을 토대로 할당할 것을 주장
- 일본은 자원상태가 악화되었던 시기에 어획한도를 미소진한 것에 별주는 할당기준은 수용 불가함을 표명
- 미국, 영국, 캐나다는 개발된 연안국들을 위한 별도 고려를 주장

○ D그룹

- 남아공, 니카라과 등 현재 명시적인 어획한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D그룹 CPC들은 어업개발을 할 기회가 없었던 CPC들에게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됨을 주장
- EU는 어업개발권에 대한 고려가 D그룹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D그룹 전체에 대한 한도 설정, 예측가능성을 위한 조업계획 검토 및 승인, 할당에 상응하는 능력 제한을 주장
- 일본은 D그룹 CPC가 어획량을 증가시킬 경우, D그룹에서 벗어나서 명시적인 어획한도를 설정('졸업')받게 되는 원리*를 제안

(일본 제안) D그룹 CPC 졸업 원리

1. D그룹 어느 CPC 어획량이 기준한도 1,000톤을 초과할 경우, 패널1은 해당 CPC에 대해 향후 연도들에 적용될 구속적인 한도를 설정
2. 해당 CPC에 적용될 구속적인 한도분의 1/2은 D그룹 전체 할당분에서 차감하고, 1/2은 어획한도 있는 CPC들의 미소진 한도를 회수한 유보량에서 차감
3. 상기 2번을 적용했을 때, 해당 CPC의 어획한도 수립을 위한 할당분이 부족할 경우, A-B 그룹 CPC들의 어획한도를 비례적으로 차감하여 부족분 충당

○ 논의 결과

- 어획 할당 기준(역사적 어획량 vs. 최근 어획량) 및 D그룹 한도 설정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사항 없음

3. 향후 계획

- (회기간 작업) 주요 그룹(중미, 서아프리카, EU, 일본 등) 대표자 간 연락하여 이견 조율 및 제안서 통합
- (제3차 회의) 10.23(월) 17:00~01:00 / 화상회의

□ 관찰 및 평가

- 최우선 작업은 FAD 금어기에 대한 입장 차이 해소
 - 미국, 영국, 캐나다는 FAD 금어기 확대 등 치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TAC 증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 중미는 현재 FAD 금어기(72일)도 너무 과도하므로 FAD 금어기 단축(고정 1개월 + 선택 1개월)을 요구하고 있음
 - FAD 금어기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열대다랑어 조치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해지므로,
 - FAD 금어기에 관해 양극단에 있는 CPC들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소모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본 협상의 최우선 작업일 것으로 생각됨
- 일본이 제안한 D그룹 졸업 원리의 문제점
 - 일본이 제안하고 있는 D그룹 CPC의 졸업 원리는 어획량이 1,000톤을 초과할 경우 패널이 해당 CPC에 대해 구속적인 한도를 설정하는 것
 - 이 제안은 2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문제1) 한도 설정을 위한 할당분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는 일본이

설명하고 있으나 구속적인 한도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구속적인 한도 없는 CPC가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패널이 해당 CPC에 대해 구속적인 한도를 설정한다는 규정은 16-01에도 있었음
- 그러나 브라질이 기준점인 3,500톤을 초과했음에도 패널은 브라질에 대해 구속적인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고(못했고) 브라질은 결국 아무런 제약 없이 어획노력을 경주한 연도들의 평균으로 한도를 설정받았음
- 브라질의 사례를 본 D그룹 CPC들도 유리한 어획한도를 받기 위해 어획노력을 경주하고 이들도 결국은 최근 평균어획량으로 구속적인 한도가 설정되는 선례가 반복될까 우려됨
- (문제2) 기준점을 초과한 D그룹 CPC의 한도 설정을 위한 할당 부족분을 A, B그룹 CPC 할당에서 가져올 경우, D그룹의 어획노력 경주에 따라 A, B그룹 CPC의 할당분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이 될 것
- 일본도 D그룹 CPC에게 계속해서 할당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됨. EU가 할당에 상응하는 능력 제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것
- 회의 중 일부 CPC들이 반대하여 일본 제안서에서 삭제되었으나, D그룹 CPC는 새로운 할당 시나리오에서 어획한도가 가장 낮은 C그룹 CPC 보다 더 높은 할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19-02가 마련될 당시, D그룹 CPC의 평균어획량이 1,000톤을 초과했다면 그 CPC는 C그룹이 되어 구속적인 한도가 적용되었을 것
-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할당안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명백한 결함이 있는 할당 원리에 의해 현재 상태보다 불공평을 심화시키는 할당 시나리오가 되어서는 안됨